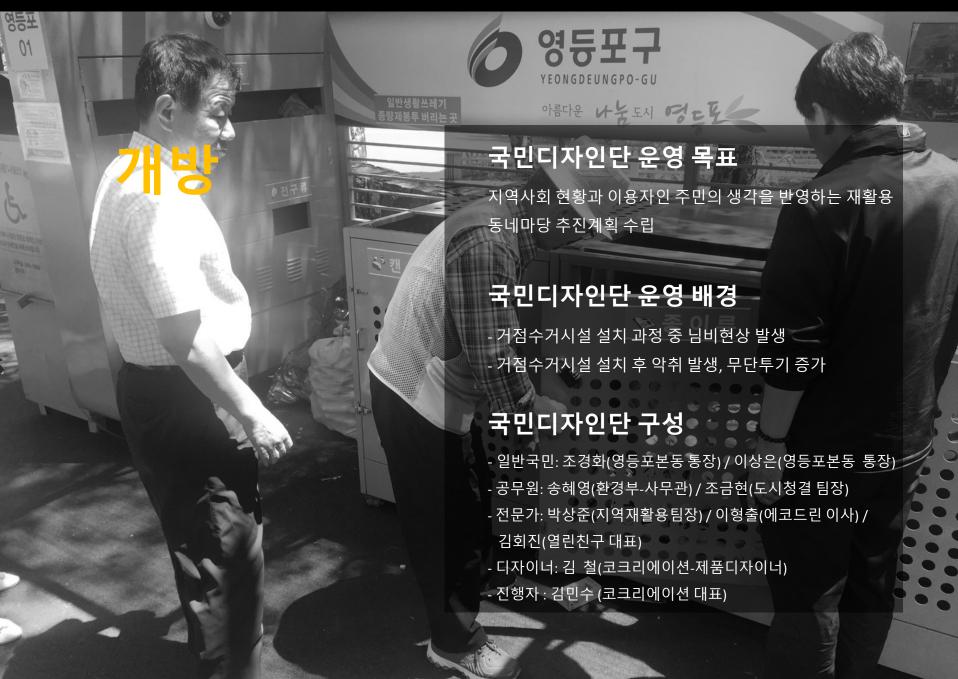


순서

- 개방
- 소통
- 참여
- 협력
-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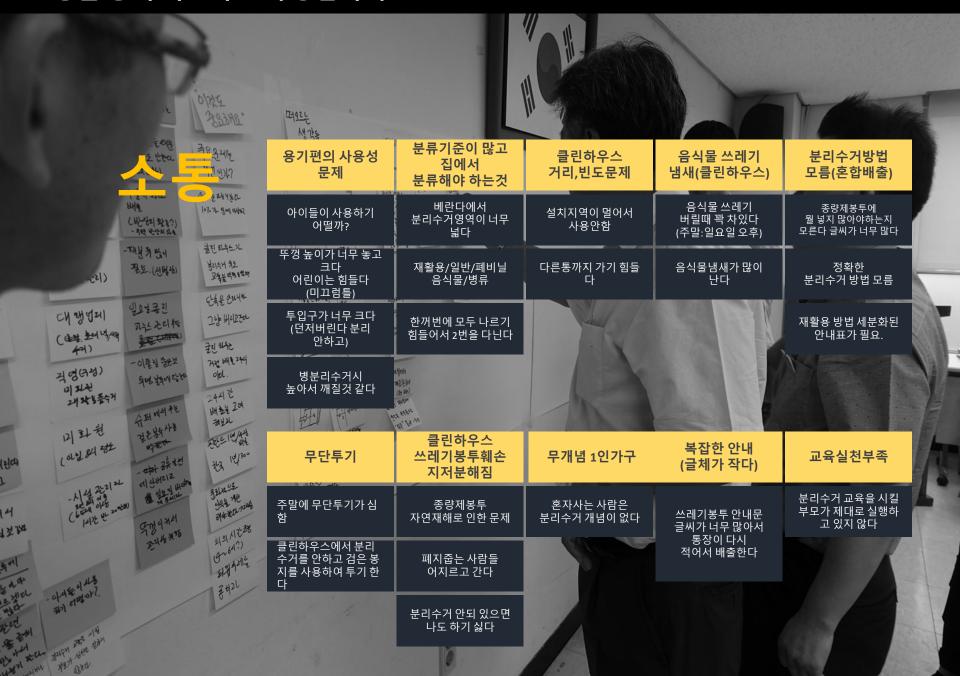
국민에게 정책 참여 기회 개방



소통을 통해 서로의 문제 공감하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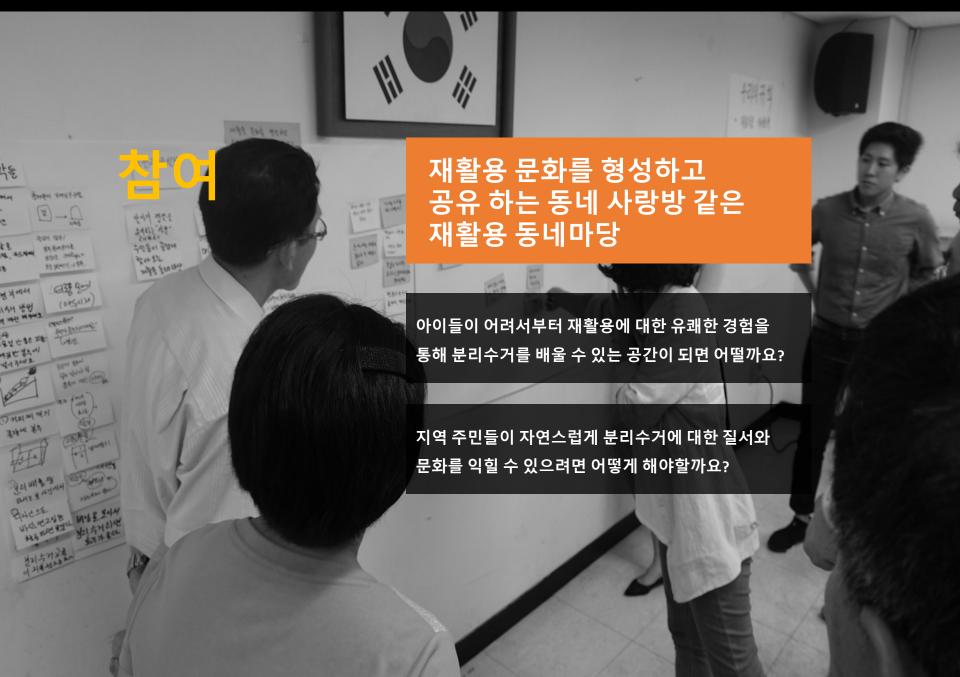
소통을 통해 서로의 문제 공감하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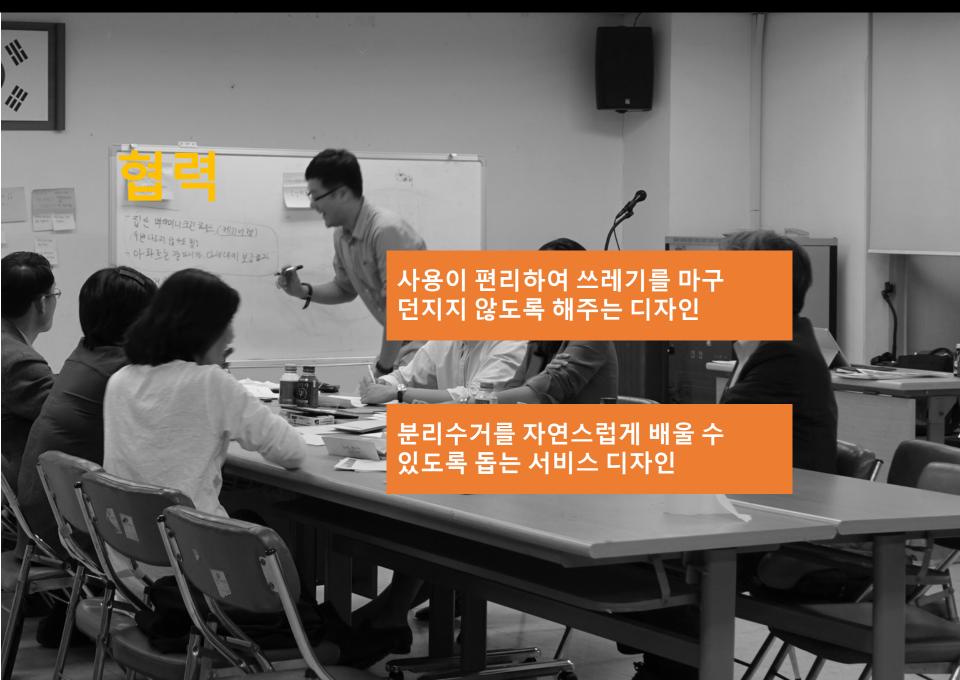
소통을 통해 서로의 문제 공감하기



참가가 아닌 참여를 통한 우리의 미래 만들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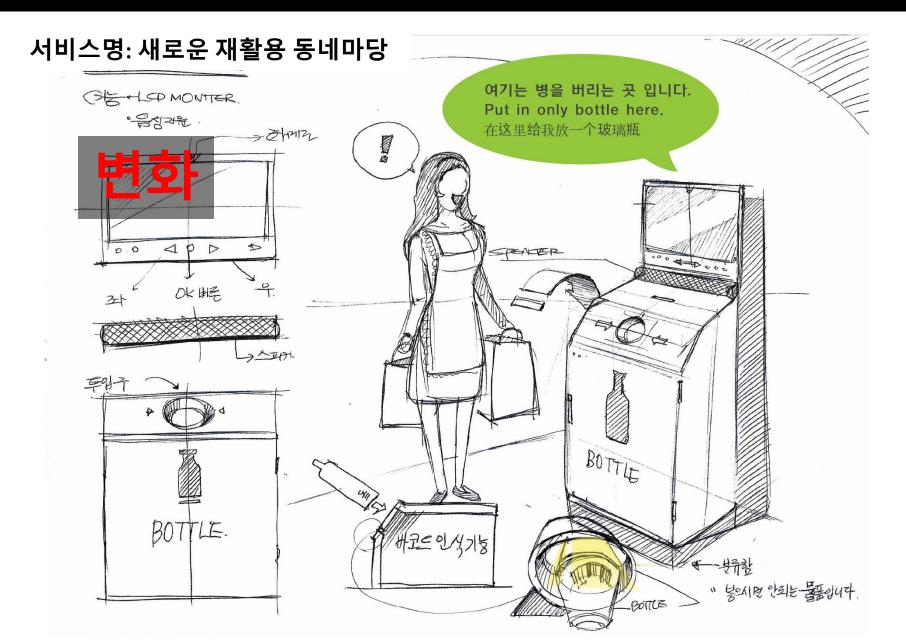


내 아이디어가 아닌 우리의 아이디어 만들기



내 아이디어가 아닌 우리의 아이디어 만들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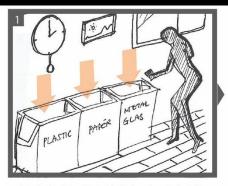




진정한 참여를 통한 변화 만들기



진정한 참여를 통한 변화 만들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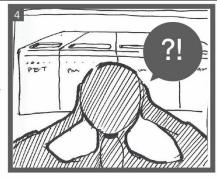
정분리씨는 일주일 동안 현관 또는 베란다에 재활용품 분리 합니다.



분리수거 배출을 위해 일요일 오후에는 재활용 동네마당으로 이동합니다.



재활용 동네마당에 도착하면 가지고 온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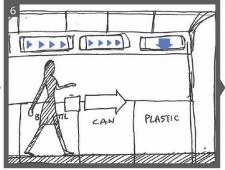
정분리씨는 다양한 분리수거 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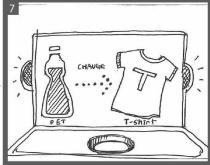
분리기준의 어려움을 느끼자 정분리씨는 아무 곳에 넣기로 결심합니다.



아무 곳에 넣으려는 순간 재활용동네마당 분리수거기에서 여기는 캔을 버리는 곳이라고 음성알람 해줍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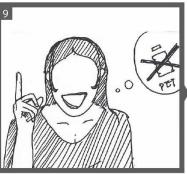
재활용동네마당에 플라스틱 위치를 LCD로 알려주어 올바른 곳으로 이동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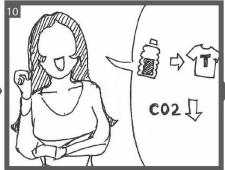
분리수거 용품을 올바른 곳에 투입하면 재활용품들이 어떻게 재활용 되는지 알려줍니다.



사용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다국어 기능으로 음성알람과 글씨로 알려줍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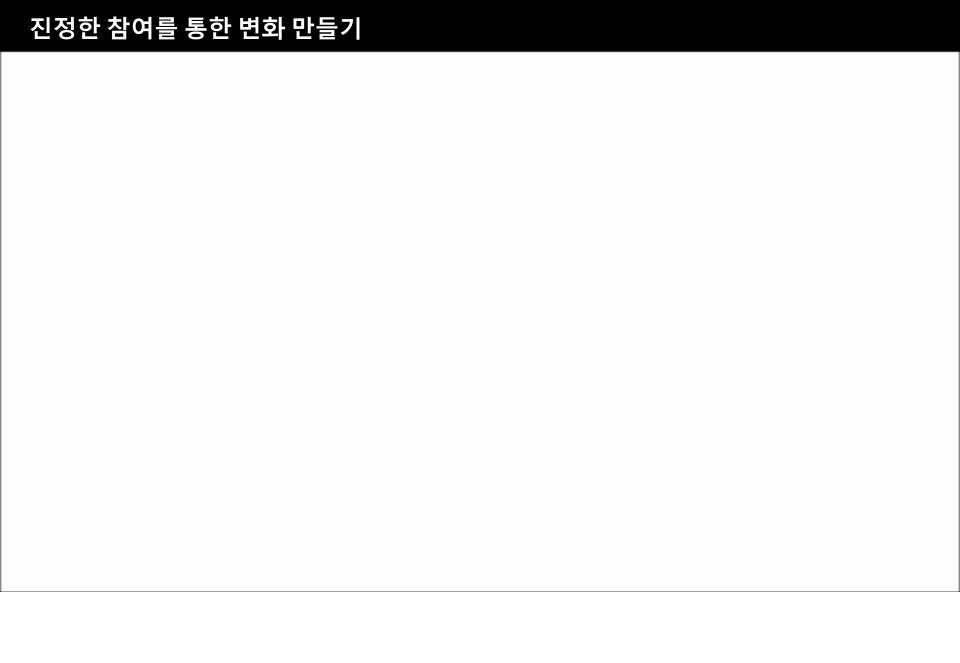
재활용동네마당의 음성과 글씨로 여러차례 배웁니다.



재활용동네마당에서 우리가 버린 재활용품이 어떤 재활용 방법을 알려주어 올바른 분리방법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지 알려 줍니다.



재활용을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고, 아끼는 한 사람이 된다는 것에 정분리씨는 자부심을 느낍니다.



진정한 참여를 통한 변화 만들기

